

#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March 31

• 마태복음 27:32

**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경꾼 중 하나였습니다.**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, 길에 서 있던 한 사람(a man)이었습니다.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. 우리와 시몬의 접점이 여기에 있습니다. 우리도 ‘구레네 시몬’이 될 수 있습니다. 마가는 그를 ‘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’로 소개합니다(마 15:21).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를 언급합니다(롬 16:13). 시몬은 ‘지나가는 행인 1’로 남지 않았고, 바울이 특별히 언급할 만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.

##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을 시몬은 황당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.

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, 그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,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그 일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아와 군사 행동을 원했을 때,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‘십자가’라는 방법을택하셨습니다. 그리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한 사람(a man), 구레네 시몬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. 그를 구원의 여정에 초대하셨습니다.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입니다(고전 1:18).

**오늘 내가 ‘a man’, 구레네 시몬입니다.**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로 가는 길에 놓인 징검다리 하나만큼의 존재였습니다.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입니다. 우리는 그저 ‘한 사람’, 징검다리 하나만큼이면 됩니다. 하나님은 지금, 여기에서, 허락하신 만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. 때로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겠지만,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합니다.

## 온수자 마카리우스가 꿈에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봤었습니다.

그는 달려가 “주님,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기십시오” 하고 간청했습니다. 거듭되는 간청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걸으셨습니다. 간청이 반복되자 예수님은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가리키며 인자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. “아들아,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.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네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?”

---

나는 ‘한 사람’으로서  
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?

- ①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경험한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까?
- ② 지금, 여기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?